



사람의 뇌는 텍스트 정보보다 이미지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며 읽어야 하는 텍스트와는 달리 이미지는 짧은 시간에 한눈에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 전에 읽었던 책의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함께 보았던 그림을 통해 내용을 떠올리는 것도 바로 이러한 뇌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학습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수업에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러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 바로 '비주얼씹킹(Visual Thinking)' 수업입니다.

비주얼씹킹이라고 하면 '비주얼'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그림 그리는 능력이 없거나 감각이 뒤틀어진다는 이유로 망설이곤 합니다. 그러나 비주얼씹킹은 미술 시간에 그리는 그림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비주얼씹킹은 '생각'을 '시각화'하는 표현 방법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간단한 그림과 도식, 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즉 비주얼씹킹에서 그림은 그 자체가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비주얼씹킹 수업은 학습 내용을 이미지와 글로 정리함으로써 우리의 뇌가 쉽게 받아들이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주얼씹킹'을 활용하면 선생님은 학습 내용을 체계적으로 쉽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지화 하는 과정을 즐기게 되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하면서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주얼씹킹 수업으로 학습한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주얼씹킹수업연구회”에서는 2014년부터 비주얼씹킹 수업을 연구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숍과 수업페스티벌을 통해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수업 기술을 나누며 수업 연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수업 혁신을 연구하며 실천하고 있는 “비주얼씹킹수업연구회”와 “미래엔”의 이번 공동 프로젝트 진행은 선도적으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수업 자료집에는 비주얼씹킹 수업의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직접 수업한 선생님들의 수업 자료를 담았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수업을 고민하는 선생님께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비주얼씹킹으로 선생님과 학생 모두가 즐거운 수업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